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과연 우리가 경험한 여름이 전에 있었거나 했다. 길고 길었던 올 여름은 그야말로 잔혹했다. 뒤늦게 찾아온 아침 저녁의 선선함에 감격하면서도 끔찍했던 여름이 앞으로 맞을 여름보다 시원할 거라고 하니 덜컥 겁이 난다. 아닌 게 아니라 올해 갑진년 새해 '역사상 가장 뜨거운 2024년'이 온다'던, 겨울에 읽은 어느 신문 기사의 제목은 안타깝게도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여름은 늘 더웠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본 여름과 달랐다. 기상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의 더위가 과거의 유형과 다르다고 한다. 평년에 비해 10% 정도 높아진 습도로 체감 온도상 최상위였으며 폭염 이외에도 장마철 집중호우와 7월 말 이후의 낮은 강수량은 예전과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제 매 시간 중계 수준에 이른 이상 기후 보도는 일상이 되었다. 올해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폭염과 폭우의 정도는 심각했다. 최근까지 유럽 중부와 동부는 유례없는 폭우로 충격에 휩싸였으며 올 여름 스페인은 44도가 넘었고 중국과 베트남 등도 사상 초유의 폭염에 시달렸다. 우리 나라 폭염 사망자 역시 지난

지난 여름의 교훈

2년 사이 약 4배가 급증하면서 올해만큼은 무서운 기후 변화를 모두가 공감했다.

문제는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 기후가 그저 오늘의 번덕스런 날씨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의 세세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실 과소평가될 수 있는 폭염은 가장 위험한 이상 기후 중 하나로 식량 안보의 문제까지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배추가 멸종하여 국산 김치가 사라진다면 관련 기사를 접한 지 얼마 안되어 실제 마트에선 이를 증명이나 하듯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오른 소위 '금배추'가 나타났다.

그야말로 온 한해는 기후과학자들이 예측해온 불과 여름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 내기 위해 개개인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더 없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도시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 이를 실천해온 몇몇 도시들은 분명 전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의 도시 메데인에서 추진한 '그린 코리더(Green Corridor)' 녹색 복도라는 의미의 프로젝트는 도시의 열을 식혀준 놀라운 성과로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메데인은 심각한 대기오염과 도시 기온의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도시 곳곳에 30개 이상의 녹색 통로를 만들어 수직 공원과 고립된 채로 남아있을 하천, 공원, 인근 언덕을

연결하며 도시전체를 녹지화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는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4년 만에 대기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평균 온도를 2도나 내릴 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곳은 단지 메데인뿐만이 아니다. 최근 도시 열섬이 발생하는 유럽 도시들은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실천하면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 도시들은 녹지 공간을 만들고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큰 성과를 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도시 열섬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온 광주시가 올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연평균 온도는 2020년을 보더라도 주요 도시보다 0.5도 높으며 부산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는 연평균기온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하천 수목의 감소는 물론 하천 습지마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광주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까? 올해 광주는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 속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며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우리의 체감 온도를 시원함은 언제쯤 느끼게 될까.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 여름은 또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지, 이제 생존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된 기후 위기에 대응할 만한 광주의 실질한 정책적 노력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멋대로' 노래는 '내 멋대로' 부를 때 가장 즐겁다. 음정 박자 없이, 혼자 신나게 부를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새가 노래하듯, 시인이 노래하듯 말속에는 노래 이상의 자유롭고 흥겨운 낙낙한 마음이 담겨 있다. 자장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울긋이 담겨 있고, 잡초를 뽑으며 흥얼대는 농부의 들노래에는 신명이 들어있다. 비탄 금액을 지불하고 콘서트에 가기도 한다. 노래는 언제 들어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책이 멀리서 찾아온 좋은 벗과 같다면 음악은 늘 가까이 곁에 함께 하는 가족이다.

동물은 물론 식물도 음악을 들려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니, 음악은 못 생명이에게 영혼을 위로해주고 평화를 선물하는 만병통치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도 노래방을 찾고, 비탄 금액을 지불하고 콘서트에 가기도 한다. 노래는 언제 들어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책이 멀리서 찾아온 좋은 벗과 같다면 음악은 늘 가까이 곁에 함께 하는 가족이다.

나만의 금지곡

예전에는 금서처럼 금지곡도 많았다. 그런데 금지한 이유가 '제멋대로'다. 정치적이고 선동적이라는 말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아침이슬'(김민기)은 '불개 타오르는 태양'이 김일성을 의미한다고 금지했다. '왜 불러'(송창식)는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영화 장면에서 삽입되어서 금지했다고 한다. 심지어 '거짓말이야'(김추자)는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기러기야애'(이미자)는 가사가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하다못해, '미안'(신중현)은 요란해서, '행진'(들국화)은 가수 창법이 미숙해서 금지곡이 되었다.

학창 시절 애창곡이었던 '정기즈칸'은 주인공이 공산권 국가 인물이라서, '보헤미안 랍소디'는 보헤미아가 당시 공산주의 국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으니 어이가 없다.

더 웃긴 것은 왜색이 강하다고 금지한 노래, '동백야가씨'(이미자)를 청와대 만찬에서 정작 본인은 애창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그 인간성이 '제대로' 드러난 셈이다.

교구나 군가, 찬송가나 찬불가 등은 목적성이 강한 의식화 노래다. 사기를 북돋아 주고 애국심과 애교심을 심어주며, 절대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찬양한다. 그러나 자기 그룹에 속한 이들을 결집하고 응집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을 배척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게 금지를 주도했던 이들은 여처구니없게 자기들의 이념에 맞는 노래는 귀에 못 박히도록 선동적으로 보급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

나 새마을을 가꾸세,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아마 이 노래를 정율성의 팔로군 행진곡처럼 목적성이 강한 의식화 노래라고 '내 멋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은 발라 나날이 날 것이다.

총과 칼을 들고 서로 증오하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자는 노래는 커다란 위안이 된다. 'We are the world', 손에 손잡고 등 올림픽 주제가 상당수가 만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다.

캄보디아 내전을 다룬 영화 킬링필드의 마지막 삽입곡 '이매진'도 그런 노래다. 국가도 민족도 종교도 없는 세상, 서로 편을 가르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배경음악은 오래도록 여운을 준다.

음악보다 정치적으로 악용된 예술 또한 드물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악보다 인간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예술 또한 없다. 진짜 좋은 음악은 그 바탕에 언제나 휴머니즘을 깔고 있다.

음악은 문화와 춤과 연극과 인생이 어우러진 대서사시이다. 그래서 불꽃을 돌며 춤추는 인디언들보다 격렬하고, 사랑을 나눌 때보다 더 뜨겁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통곡보다 더 슬프고, 누군기를 유혹하는 소리보다 더 매혹적이다.

음악이 '내 멋대로' 불릴 때 가장 흥이 나지만, 진정 '제멋대로' 불려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 금지곡은 딱 한 곡이다. 한때는 18번이었으나 지금은 나만의 금지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금지 안 된 금지곡이다. 딱히 이유도 없다. 그래도 기꺼이 묻는다면, 차마 '내 멋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고

사랑을 전하는 출산맘 나눔가게



강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센터장

우리 센터는 양육비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고민한 결과, 출산맘 나눔가게를 만들어 출산유아용품들을 공유해보면 어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출산유아용품들의 경우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 구입해야하므로 애들이 커서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품들은 기부하고, 현재 필요한 물품들은 배분을 받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 의미도 지니고 효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유로 광주 공유센터 내에 출산맘 나눔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출산유아용품들을 공유하며 출산맘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아용품 장터 등을 개최하고 있다.

출산 나눔가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유모차나 카시트인 경우는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 구입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무료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편이고,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금방 싫증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교환해갈 수 있어서 만족도가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출산맘 나눔가게에는 유모차나 카시트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대형 살균 소독기가 있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또 출산맘들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육아정보를 책자로 만들어 제공한다.

또 지속적으로 장터를 열어 유아용품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

돌잔치나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센터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하기 힘든 가정들의 신청을 받아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혼모 아가들의 돌잔치를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규모에 깜짝 놀라 너무나도 행복해 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재능기부 참가자 분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부부가 아이를 낳기 전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만만찮은 결혼비용 때문에 포기하려 했을 때 센터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재능기부센터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따뜻한 마음과 물품을 함께 나누는 많은 이들이 있어 더욱 열심히 뛰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이런 노력이 지자체, 나아가 중앙 정부로 이어져 동네방방 곡곡에서 아가들의 힙한 울음 소리가 들렸으면 한다.

社說

매일 가는 학교가 지옥이어서야 되겠는가

잊을만하면 TV나 신문 머리를 장식하는 단골 기사가 학교 폭력인 것이 어째고 늘의 일은 아니다. 집단 폭행이나 따돌림은 물론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까지 버린 사연은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매년 광주지역 초·중·고생 2100명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온 사회가 들끓고 개선책을 내놓지만 그조차 오래 가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학교 폭력이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제일 어린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08명 정도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 중학교

의료공백 장기화에 수도권 원정출산이러니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지역 산모들이 늘고 있다.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산모들의 대다수는 고위험군 임신 부들로 태어난 후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미숙아·다태아에 대처할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한 상급병원만 하더라도 최근 한 달 사이 4명의 고위험군 임신부들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원정 출산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세상동이를 임신한 A씨는 임신 27주차에 조기분만 진통으로 이 병원을 찾았지만 이들 만에 서울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분만했다. 조기분만 신생아를 담당할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당 병원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 13개 상급병원에 이송 문의를 했지만 모두 '수용 불가'라는 회신을 받고 급하게 서울 병원으로 보낸 것이다.

이 병원에서만 다태아와 미숙아 등 고위험군 임신부 4명이 서울과 경기에서 원정 출산을 했다. 실제 이 병원

**無等鼓**

올해는 김남주(1946-1994) 시인 타계 30주년이 되는 해다. 김남주는 70·80년 대 탄압에 맞서 써온 '전사시인'이자 울긋은 목소리로 한국문단을 일깨운 '민족시인'이었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며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혁명 시인'이기도 했다. 시인이 떠난 지 한 세대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유와 통일, 민중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

해남에서 태어난 시인은 해남중을 졸업하고 광주제일고에 입학한다. 그러나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 반

학제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비롯해 시노래극, 학술심포지엄, 길게 시화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시노래극 '은박지에 새긴 사랑'은 시인의 10여년 감옥생활과 이를 극복하려 했던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담아 감동을 줬다.

광주 중외공원 언덕에는 고인을 기리는 '노래'라는 시비가 있다. 시인으로, 혁명가로, 한 인간으로, 역사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고인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발 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산 끝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어엿한 뒷녘에서 울어에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시인은 그렇게 온몸으로 독재와 불의에 항거했다. 탄압의 역사, 오욕의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 때문이었다. 혹자는 오늘을 일컬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무도한 시대라고 말한다. 당장은 억압과 술수가 통할지 모르지만 언젠고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김남주 시인 30주기**

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육아정보를 책자로 만들어 제공한다.

또 지속적으로 장터를 열어 유아용품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

돌잔치나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센터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하기 힘든 가정들의 신청을 받아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혼모 아가들의 돌잔치를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규모에 깜짝 놀라 너무나도 행복해 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재능기부 참가자 분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부부가 아이를 낳기 전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만만찮은 결혼비용 때문에 포기하려 했을 때 센터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재능기부센터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따뜻한 마음과 물품을 함께 나누는 많은 이들이 있어 더욱 열심히 뛰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이런 노력이 지자체, 나아가 중앙 정부로 이어져 동네방방 곡곡에서 아가들의 힙한 울음 소리가 들렸으면 한다.

한때는 18번이었으나 지금은 나만의 금지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금지 안 된 금지곡이다. 딱히 이유도 없다. 그래도 기꺼이 묻는다면, 차마 '내 멋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상·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潤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 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FAX 222-8005 |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FAX 222-0195 |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